

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김 흥 구** · 이 미 지***

I. 서론

태국에서는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2018년 이후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태국 국민은 일단 비민주적인 군사정권과의 ‘타협’을 통해 당장의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지만 쿠데타 후 지속되어온 정치불안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불안은 경기를 침체시켰으며 서방세계와의 대외관계를 악화시켰다. 현 군사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미국과 EU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무역은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밀착되고 태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10월 13일 태국 국민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푸미폰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6). 본고를 심사해 주시고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hongkoo@bufs.ac.kr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leemiji@bufs.ac.kr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했다. 푸미폰 국왕의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푸미폰 국왕은 지금까지 태국의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태국 정치·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치

1. 새 헌법 가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지속

2016년은 태국정치에 있어 민정복귀로 한걸음 다가선 한 해였다. 고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이기도 했다. 현재 태국은 빠라웃 찬오차(Prayut Chan-o-cha)총리가 이끄는 군사정권 아래에 있다. 현 군사정권은 2014년 5월 22일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정권에 대해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¹⁾ 태국에서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1932년 이후 성

1)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군사정권이 정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총리보다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탁싌이라는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정권의 탄생은 군주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2001년 탁싌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정권

공한 12번째 쿠데타였다. 2014년 쿠데타 직후 2007년 헌법은 정지되었으며, 첫 헌법개정안은 2015년 9월 6일 국가개혁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7일 새로운 헌법초안에 대한 찬반과 별도 추가항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부결된 첫 번째 헌법초안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취임할 수 있고, 상원의원 일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국가 위기 시 위기관리 위원회가 행정, 입법권을 장악하여 국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친탁선과 정권의 재집권을 봉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던 첫 개정안보다 권력구조 측면에서 더욱 비민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초안의 핵심은 탁신크계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해 친탁선과 포어타이당(Phua Thai Party) 뿐만 아니라, 반탁선과 민주당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새 헌법 초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결과에 따르면, 투표율은 59.40%였으며, 찬성이 61.35%, 반대가 38.65%였다.²⁾ 지역별로 보면, 탁선 지지파가 많은 동북부 지역은 반대가 51.34%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북부, 중부, 남부지역에서는 모두 개헌안을 찬성하는 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 한편 추가항목으로 실시한 상원과 하원이 함께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07%, 반대가 41.39%였다. 여기서도 동북부 지역은 반대가 55.32%로 찬성보다 높았다. 아마도 군정이 이 항목을 헌법초안 자체에 포함시킬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이라는 형태로 투표를 실시한 것

성립 후 일어난 두 번의 쿠데타의 주요 원인도 결국 군주 교체를 앞두고 군주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玉田 2017/01/10; 玉田 2017/01/20).

2) 2007년 헌법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율 57.6%, 찬성이 56.7%, 반대가 43.3%였다.

일 것이다.

새 헌법이 가결되면서 민정복귀 후에도 현 군사정권의 정치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총선거 후 5년간을 이행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³⁾ 군부 지도자도 의원에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태국에서는 1992년 민주화 운동 이후 총리자격을 민선의원으로 제한해 온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준 사법적 독립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를 과도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교토대학의 태국 정치학자 타마다 교수는 상원의원을 기존의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국회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양원제이다. 모든 상원의원은 사실상 군부가 임명한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실시한 추가항목이 가결되면서, 태국에서는 하원 500명과 함께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임명한 상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보다 단적으로 말하면, 태국 새 헌법에서는 군부가 자동적으로 3분의 1의 표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군부에게 할당하는 미얀마 헌법 그 이상이 되는 것이다(玉田 2017/01/10).

그렇다면 이러한 비민주적인 헌법개정안은 어떻게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나. 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태국 유권자는 지난 3년간

3) 상원을 250명으로 정하며 244명은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임명하게 된다. 이 중 194명은 직접 임명하고, 50명은 20개 직능단체에서 간접 선출된 후보자 군 중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6명은 고위직 군과 경찰에서 임명되는데, 사실상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 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 등의 군부 지도부를 의미한다(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๘, 2016년 헌법개정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군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장보다 정치적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군정은 국민투표와 관련된 야당의 선거운동을 전면 규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유권자의 상당수는 헌법 초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다시 부결되면 군사정권이 지속될 것이며, 국민투표가 통과되어야 군사정권이 끝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표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개헌안을 토대로 헌법 조문 개정작업과 관련법 정비 등의 후속 절차를 2017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 11월~12월 중에 총선을 시행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푸미폰 국왕 서거 등의 영향으로 총선은 2018년 중반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빠랏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와치라롱깐 국왕이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⁴⁾을 요구했기 때문에 헌법 수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Newsclip.be 2017/01/11). 따라서 새 헌법의 시행은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며, 당초 빠랏 총리가 발표한 올해 내 총선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새 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군부와 정당과의 대립이다. 군정은 정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군부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다. 새 헌법에 따르면 하원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은 일반적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는 상이한 ‘변형된 비례대표제도(Mixed Member Apportionment)’를 도입하여 다당제를 유도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또한 새 정부는 군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상원과 준 사법적 독립기구의 영

4) 빠랏 총리는 새 국왕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은 정치, 선거와 관련된 조항이 아닌 왕실에 관한 조항(국왕의 국내 부재 시 섭정을 임명하는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원 의원이 아닌 자, 즉 비선출 의원이 총리에 취임 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태국 2대 정당인 친탁싌과 프어타이당 뿐만 아니라 반탁싌과 민주당 역시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군부에 우호적인 민주당 아피셋(Abhisit Vejjajiva) 전 총리는 특히 군부가 상원 의원 임명권을 갖는 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아피셋 전 총리는 결과를 인정하며 예정대로 총선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군부와 친탁싌과 프어타이당과의 대립이다. 잉락 전 총리는 우선 총선 실시에 의미를 두고 투표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개정안의 비민주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⁵⁾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은 2018년 이후 시행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탁싌파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2007년 헌법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선거에서 탁싌파 정당이 압승한 경험이 있다.⁶⁾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탁싌-잉락 계열의 프어타이당이다. 그러나 프어타이당이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동북부와 북부라는 강력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다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홍구 2016: 3-4).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탁싌계 정당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군사정권의 강도 높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잉락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쌀 수매와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로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군사정권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보조금 정책을 통해 유발한 재정손실의 규모가 약 2,900억 바트(약 9조 5,000억

5) 국민투표가 통과된 이유는 국민들이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했다기 보다 조속한 선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 탁싌파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면서, 타이락타이당에서 팔랑쁘라 차츰당, 그리고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꾸어 집권해왔다.

원)에 이른다고 대법원 형사부에 통보했으며, 형사부는 잉락 전 총리에 대해 350억 바트(약 1조 1,000억 원)의 벌금형과 자산압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군부는 해외도피 중인 탁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미납 세금과 벌금 약 12억 바트(약 3,900억원)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경제 2017/03/16).⁷⁾ 총선 전까지 친탁썬파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군사정부의 언론 통제 및 인터넷 감시 또한 강화되고 있다.⁸⁾ 지난 2016년 12월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왕실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 했을 경우 최고 금고 5년형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35만명을 넘는 등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군정은 왕실보호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지지했다. 실제로 총선이 실시되고 민간이양이 되었을 때 국민적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총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라마 10세의 즉위

2016년 10월 9일 왕실사무국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Bhumibol Adulyadej)의 혈액투석 및 과도하게 분비되는 척수액을 빼내기 위한 삽관 교체 후 건강상태가 ‘불안정’ 하다고 발표했다(Bangkok Post 2016/10/09). 이날 발표문은 국왕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언급하

7) 2012년 중앙 세무법원은 탁썬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8) BBC 태국어 사이트에 게재된 와치라롱컨 새 국왕의 프로필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로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20대 학생운동가를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기사는 국왕의 개인적 신상 문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군정은 BBC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않은 최초의 발표문이었다. 국왕의 서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13일 왕실사무국은 푸미폰 국왕이 13일 오후 3시 52분에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1일 푸미폰 국왕의 장남 와치라롱껀(Vajiralongkorn) 왕세자가 랏따나꼬썸 왕조(1782년~현재)의 10번째 왕(RAMA 10세)으로 즉위했다.⁹⁾

새 국왕과 군부, 탁실파의 관계는 향후 정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와치라롱껀 새 국왕은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1972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어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후계지위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씨리킷(Sirikit) 왕비와 탁실파가 와치라롱껀을 지지했으며, 반면 푸미폰 국왕의 두 번째 딸이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씨린턴 공주(Sirindhorn)를 왕실자문기구인 추밀원 의장 뿌렘을 비롯한 군부세력이 후계자로 지지하면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와치라롱껀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 집권군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쿠데타 이후의 군부 내 실세는 ‘동부 호랑이 파벌’로 알려져 있다. 이 파벌은 태국군 1군 산하 2사단 21연대에서 장교생활을 한 군인들을 가리킨다(Bangkok Pundit 2014/09/09; Pavin 2015/01/21). 21연대는 한국전을 통해 그 용맹성으로 ‘파약 너이’(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씨리킷 왕비로부터 ‘왕비의 호랑이 부대’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 왕비는 명예 연대장으로서 이 부대 출신 장교들을 각별히 챙겼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왕비는 왕세자를 후계자로 적극 지지해 왔다.

현재 군사정권 실세들은 모두 ‘동부 호랑이 파벌’ 출신들이다. 뿌라웃 총리를 비롯해 뿌라윗 윙쑤완(Prawit Wongsuwan)부총리, 이누

9) 왕실비서국에서는 영어 명칭으로는 ‘Maha Vajiralongkorn Bodindradevayavarangkun (마하 와치라롱껀 버딘타라뎡파야와랑꾼)’으로 표기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Maha Vajiralongkorn(마하 와치라롱껀)’으로 표기하고 있다.

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내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정국 장악의 주역들로서 모두 21연대에서 장교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근래 들어 왕세자는 군부와 몇 차례 의미 있는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빠라우트 총리를 비롯해 현 군정의 실세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대회(Bike for Dad, Bike for Mom)’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와치라롱건의 젊고 호심 깊은 이미지 만들기에 나서는 등 후계 구도 공고화에 노력했다. 혹자는 이 행사가 왕세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행사를 통해 군부 내에서 누가 차기 국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Thomas Fuller 2015). 뿐만 아니라 과거 푸미폰 국왕이 농촌개발계획을 통해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왕세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산층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Tan Hui Yee 2015).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권 하에서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도 왕세자의 왕위계승과 관련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사회 기강 잡기를 통해 왕세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의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 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5).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와치라롱건은 탁싰이 총리직에 취임하기 이전 1990년대부터 탁싰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군부쿠데타

로 탁싨이 정계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와치라롱껀은 탁싨 세력을 지지했으며, 2013년 11월 잉락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옐로셔츠의 대규모 시위 때에는, 자신의 휘하 ‘끄롬 타한 마하렉 랏차완롭 락싸 프라운’(보병연대)을 잉락 전 총리 경호를 위해 파견하기도 했다 (Pavin 2015/07/03). 군부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와치라롱껀은 왕권강화를 위해서는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싨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이로써 새 국왕은 현 군정과 탁싨의 눈치를 동시에 보게 되었다. 향후 와치라롱껀이 현 군사정권과 탁싨 세력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1972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지금까지 44년간 무수한 개인적 자질 시비 끝에 왕위에 오른 새 국왕은 앞으로 푸미폰 국왕과 같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반복되는 쿠데타와 취약한 정치상황 속에서 정치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태국의 정정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치라롱껀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 시기를 미루어둔 채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독일에서 머무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하지만 즉위 시기가 늦추어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자 얼마 안 있어 즉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위 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발생한 정치적 불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국왕 자질의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그가 태국의 진정한 의미의 입헌군주제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색다른 의견도 있다. 새 국왕은 푸미폰 국왕과 같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하여 정치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역설적으로 입헌군주제 제도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새 국왕의 탄생은 정치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셈이다.

Ⅲ. 경제 및 대외관계

1.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태국경제와 푸미폰 국왕의 서거

2016년 태국 경제성장률(GDP)은 3%대 초반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1년 0.83%까지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은 다음해인 2012년에는 7.23%로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가, 2013년에는 2.70%, 2014년에는 0.82%까지 하락했다. 저조했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2.82%, 2016년에는 3.23%(10월 시점 추계)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¹⁰⁾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2016년 경제성장률은 3.2%라고 공식 발표했다. 태국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책과 외국인 관광객 수의 회복에 따른 개인소비의 확대, 서비스업의 성장이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 태국정부관광청(TAT)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259만명으로¹¹⁾ 전년대비 9%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은 13% 증가한 약 1조 6,500억 바트였다.

태국 경제의 흐름은 경제성장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년 그 격차

10)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검색일: 2016.12.28)

11) 국가별로 보면, 중국 880만명, 말레이시아 350만명, 한국 145만명, 라오스 142만명, 일본 141만명 등이 있었다.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https://www.tourismthailand.org/king10/en-landing.html> (검색일: 2016.12.28)

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200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태국 내 정정불안 및 대규모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 내부적 요인의 영향이다. 특히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군부쿠데타 및 2011년 태국 중부지역을 강타했던 대홍수는 그 해 태국 경제 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근본적으로 태국이 내수중심이 아닌 외수중심의 수출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이 그 해의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2016년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0.2%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 외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 주요 이유는 세계경기 회복과 원유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 때문이다(Bangkok Shuho 2016/12/27).

태국 상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은 2015년 동시기 대비 0.05% 감소한 1,97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 5.13% 감소한 1,774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6년 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은 2015년에 이어 중국이 차지하면서 태국 내 중국의 존재감이 증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태국의 3대 수출 대상국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¹²⁾, 수입은 역시 2015년과 동일하게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수출에서는 2015년부터 2년 연속 미국이 중국을 역전하며 1위를 차지했고, 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최근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수입에서는 2014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앞서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태국의 대 일본 수입액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2016년 한국은 태국의 17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5번째 수입 대상국이었다

12) 2016년 수출입 자료는 세계무역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의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치이다.

(KOTRA 2017).

2016년 10월 13일 태국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받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은 1년간의 애도기간을 가지며, 국민은 1개월간 오락성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공포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활동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에 개최 예정되었던 일부 오락성 강한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그 영향으로 GDP의 약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태국중앙은행은 월례경제보고를 통해 10월 경제동향을 외국인과 내국인 여행객이 증가하지 않아 전월 대비 경기가 정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6년 한 해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1.1% 증가했으며, GDP의 1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내국인 여행객 모두가 각각 전년대비 12.6%와 8.3% 증가했다.¹³⁾ 따라서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실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거 2011년에 발생한 대홍수와 2014년에 발발한 군부쿠데타에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MUFG 2016).

푸미폰 국왕 서거 4일전, 건강의 ‘불안정’이 발표된 2016년 10월 9일부터 주가지수 및 환율이 대폭 하락하고,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철수되는 등 태국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되었다(みずほ総合研究所 2016). 이는 그 동안 태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켜 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 서거 후 다음날 하락했던 주가지수 및 환율은 빠르게 회복세에 들어갔다. 국왕 서거 직후, 태

13) 태국관광체육부 <http://www.mots.go.th/>

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진흥국(DITP)은 경제와 무역관련 비즈니스 이벤트는 모두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10월 17일 쏘깃(Somkid Jatusripitak) 경제 부총리 또한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왕서거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 태국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했다. 현재는 축제 및 공연, 이벤트 등도 정상화되고 있다. 1년간의 복상기간이 종료되면 침체되었던 소비 분위기가 또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푸미폰 국왕의 서거 자체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관광 및 소비 등에 있어서 한정적이며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침체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푸미폰 국왕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군사정권 수립 후 중국과의 관계 강화

태국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6년 대내 직접투자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일본이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태국투자청(BOI)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3,010억 1,300만 바트를 기록했는데, 투자국 1위는 일본으로서 전체 20% 가까이 차지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자동차, 전기 및 전자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생산,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매년 약 20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일본 자동차 업체가 9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으

로서 일본기업 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재검토되고 있기도 하지만(박번순 2014), 외자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한편 2014년 5월 군부쿠데타에 의해 발족된 군사정권은 미국과의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쿠데타 이후 태국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선거를 촉구했다. 또한 군사비 원조를 중단하고 FTA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다. 유럽연합(EU)의 입장도 미국과 같다. 태국과 미국 양국의 대립을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사건은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주태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받은 일이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¹⁴⁾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Kurlantzick 2015). 비록 기소되어 왕실모독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양국관계의 긴장된 일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에 대해서 태국산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는 반면, 태국 상무부는 TPP가 좌절되는 것이 태국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JETRO 世界のビジネスニュース 2016/11/25). 원래 미국 주도의 TPP가 체결되면 TPP 비회원국인 태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나라로 분류되었다. 혼다와 닛산, 도요타 자동차, 소니 등 수많은 일본 대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태국은 TPP가 발효되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입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미국과 EU,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민정복귀를

14) 형법 제 112조는 “국왕,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을 비방,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에서 1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압박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사실상 현 정권을 지지하며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 왔다. 푸미폰 국왕 서거 후 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솜깃 태국 경제 부총리는 수출 촉진과 중국과의 전략연계 등의 대응책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밝혔다. 태국과 중국 간 경제 전략연계는 향후 더욱 밀접해 질 전망이다.

현 군사정부는 국책으로서 2022년까지 약 1조 8,000억 바트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 간 철도 및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16/03/04). 태국 고속철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현재 수도 방콕과 북부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일본과, 그리고 방콕~동북부 간 고속철도는 중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8월 태국과 일본 양국은 방콕~치앙마이 간(약 700km) 고속철도계획에서 일본의 신칸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각서를 체결했으며, 201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Searchina 2016/11/08). 일본이 기술과 건설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태국은 중국이 구상 중에 있는 중국 운남성에서 라오스를 경유하여, 방콕으로 연결되는 장거리 철도건설 계획에 협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방콕~동북부를 연결하는 873km 고속철도 계획에 중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건설비용 분담 등에 관한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었다. 2016년 12월에 착공 계획되어 있던 방콕~동북부 나컨랏차시마(약 250km) 간 고속철도 노선이 방콕~닝카이(약 620km)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다시 합의되었고, 곧 착공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태국은 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관계는 향후 국내의 상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는 태국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의 틀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태국은 ‘유연한 외교정책’(bamboo policy)을 유지해 왔다. 모든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며 철저하게 실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소원하고 중국과 밀접한 태국의 대외관계도 충분히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과의 관계

1958년 10월 한-태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 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부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콩권 경제의 중심이다. 태국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태국은 한국에 있어서 동남아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투자 상대국이며, 약4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태국 현지에 진출해 있다. 2010년 태국과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무역규모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FTA 발효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전년대비 30.5% 증가하여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후 조금씩 감소세에 있다. 2016년 한-태 양국의 교역액은 1월부터 10월까지 9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112억 1천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는 태국 무역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은 철강관, 반도체, 합성수지, 알루미늄, 기구부품 등이 상위를 차지했고, 대 태국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임산부산물 등이었다(KOTRA 2017).

한편 한국은 태국의 국가 프로젝트인 물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1년 대홍수를 계기로 국책으로서 홍

수대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대홍수로 짜오프라야 강이 범람하면서 800명 이상의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를 냈으며, 방콕근교 공업단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았다. 이후 재해예방을 위해 짜오프라야 강을 비롯한 주요 25개 강 유역을 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물관리 사업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4년 쿠데타로 인한 정권교체로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솜깃 경제 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현 군사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사업, 철도사업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016년 8월 한국정부 국토교통부는 태국정부와 후웨이루양강 물관리 사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아주경제 2016/08/08). 이번 물관리 사업은 태국정부가 제안한 정부간거래이며, 1단계 공사가 2017년부터 추진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서울신문 2016/08/09).

한편 다소 주춤했던 경제관계와 달리 한국과 태국의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한 태국인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약 192만명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말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7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⁵⁾ 그리고 2016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태국정부관광청(TAT)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7% 증가한 145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이 되고 있다. 최근 태국에서는

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806&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검색일: 2016.12.28)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자국 드라마 촬영에 한국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자발적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적 요소를 담은 태국 콘텐츠들은 주변 동남아 국가로 수출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2016년 11월에 태국 지상파 CH3 드라마 ‘미아루영(The Legal Wife)’ 촬영팀이 부산을 방문하여 로케촬영을 마쳤으며, 이 드라마는 2017년 봄 태국 국내에서 방영 될 예정이다.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는 정부간 공동제작 협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¹⁶⁾ 이러한 태국 내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로 힘입어 한국어 교육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어가 태국 대학입시 PAT(Professional & Aptitudes Test)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채택되면서,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 수능에 한국어를 포함시킨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해외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수험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수는 약 10만 명인데, 그 중 태국인이 약 2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IV. 전망

70년간 재위했던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함께 태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새 헌법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결코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지 못 할 것이다. 새 헌법은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중순 이후 총선이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 후 군부가 주도하는 5년간의 민정이양기가 시작된다. 새 헌법은 임명직 상원제를 채택하고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총리에 임명할 수 있게

16)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태국 간 공동제작 협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간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태 양국 간 문화교류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강화시키고, 정당정치 영역을 축소시켰다. 앞으로 군사정권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 민간정치 영역 확대 요구 등으로 정치 세력 간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와치라롱껀 새 국왕은 정치적 균형자 역할을 할 입장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불안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2017년에도 태국경제는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⁷⁾ 태국 재무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 이상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촉진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으며, 내수경기 부양책으로서 특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농가를 지원한다.¹⁸⁾ 동 위원회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연 5~7% 성장에 비하면 뒤쳐진다. 태국은 현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푸미폰 국왕의 서거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국내외적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 발족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그 중요한 요인이다.

17) 세계은행은 2017년 태국 경제 예상치를 3.2%로 전망했다. 미국경기 호전 등의 세계 경제회복세에 따라 태국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Bangkok Shuho 2016/12/20).

18) 특히 군사정권은 탁센 지지파가 많은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총선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홍구. 2016. “태국 정치 “쁘렘 모델”의 부활.” 『EMERiCs 이슈분석』 12월 9일.
- 박번순. 2014. “공업화 일등공신 日투자 태국 자립 경제에는 ‘독’ 독자 부품산업 육성이 해결책.” 『Chindia Plus』 95: 22-25.
- KOTRA. 2017. “태국 경제 및 무역 동향.” 방콕: KOTRA 방콕무역관.
- みずほ総合研究所. 2016. “タイ國王崩御後の注目点.”
- 玉田芳史. 2017. “權威主義体制のための2016年タイ國民投票(1).” 新興國の政治と經濟 1월 10일.
- _____. 2017. “權威主義体制のための2016年タイ國民投票(2).” 新興國の政治と經濟 1월 20일.
- Bangkok Pundit. 2014. “In Post-Coup Thailand, What Is Happening with Prem?” *Asian Correspondent* September 9.
- Handley, Paul M. 2006. *The King Never Smiles: A Biography of Thailand's Bhumibol Adulyadej*.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Kurlantzick, Joshua. 2015. “U.S. Ambassador to Thailand Investigated for Lèse Majesté.” *The Diplomat* December 19.
- MUFG. 2016. “BTMU Thailand Monthly” November.
- _____. 2017. “BTMU Thailand Monthly” March.
- Pavin, Chachavalpongpun. 2015. “Royal Succession, Military Rule Come Together in Thailand.” *Nikkei Asian Review* January 21.
- _____. 2015. “Thai Monarchy on Verge of Dramatic Change.” *The Japan Times* July 3.

- Tan Hui Yee. 2015. "Thai Crown Prince Leads 'Bike for Mom' Cycling Event." *The Straits Times* August 17.
- Thomas, Fuller. 2015. "With King in Declining Health, Future of Monarchy in Thailand Is Uncertain." *Asia Pacific* September 20.

인터넷 자료

- 서울경제. 2017년 3월 16일. <http://www.sedaily.com>
- 서울신문. 2016년 8월 9일. <http://www.seoul.co.kr>
- 아주경제. 2016년 8월 8일. <http://www.ajunews.com>
- 日本經濟新聞. 2016년 3월 4일. <http://www.nikkei.com>
-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๙ (2016년 헌법개정안).
Bangkok Post 2016년 10월 9일.
Bangkok Post 2016년 10월 14일.
Bangkok Shuho 2016년 12월 20일.
Bangkok Shuho 2016년 12월 27일.
- BOI <http://www.boi.go.th>
- Far East Economic Review* 2002년 1월 10일.
-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16년 10월.
<http://www.imf.org>
- JETRO 世界のビジネスニュース. 2016년 11월 25일.
<https://www.jetro.go.jp/biznews/>
- NESDB. <http://www.nesdb.go.th>
- Newsclip.be. 2017년 1월 11일. <http://www.newsclip.be>
- Searchina. 2016년 11월 8일. <http://news.searchina.net>

태국 2016 267

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5년 12월 1일.

(2017.04.08. 투고, 2017.05.15. 심사, 2017.05.16. 게재확정)

<국문초록>

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김 흥 구 · 이 미 지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탄핵과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

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 새 헌법, 군사정권, 민정이양, 경제 저성장, 대외관계

<Abstract>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KIM Hong K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Mi 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ssess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tics, economy, and diplomacy in Thailand in 2016. Specifically, it reviewed the New Constitution that was passed in 2016, the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forces and the trend of military regime around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This study also set out to figure out changes to the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under the military regime and make predictions for the impact and future prospects of King Bhumibol Adulyadej's death on th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country.

In 2016, the politics of Thailand took a step further toward th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an authoritarian system. The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which does not seem to be democratic, was approved by a referendum and enabled the military authorities to continue their political interventions, eve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New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duces the power of political parties itself in addition to simply keeping the Thaksin's party in check; thus, anticipating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political parties. In this situation, the absence of King Bhumibol Adulyadej, who us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promoting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country, and the accession of the new king to the throne raise concerns about the acceleration of political instability, which has continued after the coup and influenced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country. Today, Thailand is distancing itself from Western nations that do not recognize the current military regime including the U.S.A. and EU member states and instead maintains a rapidly friendly and close relation with China. In 2016, the economy of Thailand made a gradual recovery rather than high growth.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has exerted limited direct economic impacts only on individual consumption and tourism and is not likely to cause a recession. An economic crisis will, however, be unavoidable if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escalate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o transfer power to the civil government.

Key Words: Thailand, Bhumibol Adulyadej, New Constitution, Military Regim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Low Economic Growth, Foreign Relation

